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 외국환평형기금 최고치 경신

□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, 10월 외국환평형기금이 2년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
- 10월 외국환평형기금*은 5,190억 위안으로 전월대비 79.3% 급증해 30개월 (2008년 4월 5,251억 위안) 만에 최고치를 경신함.

* 외국환평형기금 : 자국 화폐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직·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환을 매매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

- 유럽의 재정위기 불안 확산 및 국제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5월과 6월에 하락 추세를 보였던 외국환평형기금은 7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됨.

□ 무역수지 흑자와 핫머니 유입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유동성 관리와 핫머니 유입 차단을 위해 지급준비율 및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.

- 외국환평형기금 급증은 주로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* 및 외국 인직접투자(FDI) 증가세 확대로 외환시장 안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인함.

* 중국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중국의 3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,02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03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의 7.2%에 달해 지난 G20재무장관 회의 당시 미국이 제안했던 ±4% 제한 폭을 크게 상회한 수치임.

- 또한 최근 미국발 추가 금융완화정책으로 야기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신흥국 들로의 핫머니(투기성 단기자금)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, 특히 금리인상 및 위안화 절상 등의 기대심리가 중국에 핫머니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분석됨.
- 따라서 유동성 관리능력 회복과 핫머니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정부가 12월 중 지급준비율 내지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음.

(중국증권보, 11/29)